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라
마태복음 4:17

주간 충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 총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7 충현교회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재웅

오늘 맥추감사절 및

제5차 성찬식



오늘은 맥추감사절입니다. (출 23:16) 지난 상한절(1~6월) 동안 끝없는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의 손길을 느껴 보십시오. 현재 자신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입니까? 영원한 죽음의 저주에서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총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롬 8:2) 이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성찬식(1~5부 예배 시)을 통해서 더욱 깊이 체험하며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고전 15:57)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막 6:31) 이 말씀은 매우 분주한 사역을 하던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쉼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쉼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쉼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6일간 창조하신 하나님은 7일째에 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쉬게 하기 위해서 일 주일에 하루를 ‘쉼의 날’로 정하셨습니다. (창 2:2,3) 이렇듯 쉼은 하나님이 친히 정하신 축복입니다.

참된 쉼은 예수님이 주십니다. (마 11:28,29) 십자가의 은총만이 바른 일상으로 지쳐 있는 우리의 영육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쉼(휴가)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쉼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을 좇아가서는 안 됩니다. (요일 2:16)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어디에 있든지 진리의 등대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휴가 계획을 세우기 전, 가장 먼저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여십시오. 산과 바다가 아니라도 지쳐 있는 우리의 영육은 자연스레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고후 2:15)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을 들으라! (금요찬양집)

무엇에 가장 큰 가치를 두는가?

스스로에게 물어 보고 결정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다. 과연 우리는 무엇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있는가? 날마다의 삶을 통하여 누구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가? 이렇게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매일의 삶 속에서의 행동들은 누구의 결정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한다. 목적하는 바를 이루는 것을 행복이라 하는 사람도 많다. 여기에는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니다. (갈 1:6~8) 행복을 얻기 위해 종교의 길을 찾는다. (행 17:16,22,23)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행복의 근원이 된다면, 이러한 것들이 사라질 때 ‘참으로 나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겠는가! 이 말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딤후 1:3,4)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과연 무엇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있는가?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그 진리를, 세상 사람들은 과연 발견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의 근원을 간직하고 있었다. (행 9:4,5) 이 비밀을 간직한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인생의 마지막을 기다리며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편지를 썼다.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한다. (빌 1:20,21,4:4) 이것은 최고의 기쁨이 주 예수 안에 있음을, 믿는 자들에게 알려 주려는 간절한 사랑의 표현이다. 그것은 예수께서는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기 때문이다. 주님은 에수를 믿는 자들을 향하여 세상 끝 날까지 함께 하시며, 결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어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셨다. (요 14:17,18) 바울이 열약한 환경 속에서도 참 기쁨이 있었던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한 인간에게 행하신 엄청난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빌 4:11~13) 우리들도 그리스도 에수를 진심으로 믿는다면 이러한 깊은 경지의 기쁨을 소유할 수 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라 기뻐하라”는 말씀 안에 기뻐할 것을 선택하라는 권고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시다. (롬 8:31,32)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롬 8:38,39) 그리스도인에게 인생의 풍파가 닥쳐오지 않을 것이라고 가르치고 믿는 것은 잘못이다. 우리들의 가치 기준은 하나님의 뜻과 많이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건강과 안정, 투쟁이 없는 삶을 원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고통과 투쟁하는 가운데 승리하여 얻은 인내, 평강, 믿음이다.

참 믿음은 세상의 환난과 핍박으로부터 분리된 내적인 평안과 기쁨을 가져다 준다. (롬 15:13) 사도들이 매를 맞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이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다. (행 5:41) 시편의 기자들도 주 안에 있는 구원과 소망과 힘과 기쁨을 노래하였다. (시 104:33,34) 하나님만이 완전한 지혜자이심을 노래했다. (시 111:10)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들을 돌아보신다. (시 147:10,11) 우리가 하나님을 섬당시키고 또 죄를 범할지라도 그리스도는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 (골 3:17) 자신의 힘으로는 기뻐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할지라도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반대파의 심한 공격을 받고 사역을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1년 반을 그곳에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하였다. (행 18:9~11) 이것은 바울이 주께서 늘 함께 하시며 자신의 모든 것을 아시고 고귀함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빌 4:6) 좋은 환경과 여건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임을 기억하고 늘 기뻐하며,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자. (약 1:17)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의 행동으로 나타난다. (약 1:14,15) 인간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생각이 결국은 내일 그 몸을 통하여 행동으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다. (고전 2:16) 그리스도의 영광을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스도께서 날 대신하여 당하신 그 십자가를 생각할 수도 있다. 또 성령을 따라 살기를 선택할 수도 있다. (빌 4:8)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항상 기뻐하는 것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보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거하는 기쁨의 원천을 소망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삶은 우리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다. 오직 우리가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내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셔 들일 때에만 참 기쁨을 체험할 수 있다. 우리의 선택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에 우리는 증인 역할을 감당하게 되며, 우리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원하게 되는 전도가 시작된다. 아멘.

TRUST IN THE LORD

O Israel, trust in the Lord; He is their help and their shield.

(Psalm 115:9)

God desired all of Israel to trust in Him. He was the one who actually called them to Himself. He delivered them from Egyptian slavery by the blood of the lamb, through the Passover. He led them safely across the Red Sea and the Jordan River on dry ground. He provided them with manna from heaven. His love and care for Israel is exactly the same for believers today. He called you through the gospel, and delivered you from sin and death through the blood of His Son. He provides everything you need for this life, and safely leads you by His Spirit to heaven. God is an awesome God. He speaks to you through His Word, the Bible, and wants you to listen to Him. He wants you to trust in Him, and only Him, because He is God.

God knows all your days. He knows you, your family, friends, where you live, where you work, and how you live. He knows everything about you. There is nothing He does not know about you. Sometimes you act like He does not know everything, but He does. He knows all your secrets. Jesus spoke about things hidden from the foundation of the world (Mt. 13:35), so there is nothing you can hide from God. Some people worry about this life and what is going to happen, but God knows your future. He remembers everything, even when you do not. Jesus is going to tell the righteous, "Come, you who are blessed of My Father, inherit the kingdom prepared for you from the foundation of the world." (Mt. 25:34) Jesus will remember their every deed, even though they will not. (Mt. 25:35-39) He records every believer's name in the book of life. (Rev. 13:8) He retains the knowledge of all the prophets whose blood was shed sinc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Lk. 11:50) My dear friend, please trust God for everything because He knows everything. Nothing is hidden from Him.

God knows the limit of your strength. He promises that nothing can come before you that you will not be able to handle, "No temptation has overtaken you but such as is common to man; and God is faithful, who will not allow you to be tempted beyond what you are able, but with the temptation will provide the way of escape also, so that you will be able to endure it." (1 Cor. 10:13) He knows how much you can take,

and equips you for each and every day. Our Lord knows our breaking points; He knows our limitations. He will not allow anything to go beyond it. Only you can disconnect the promise through mistrust. God knows when you are at the end of your rope, when you feel that you cannot go on and He is always there to give His strength. He knows when you are tired, nervous, bewildered, tempted, discouraged, and near giving up hope. He knows the satanic opposition and oppression that you face. The good news is that He cares and will take care of everything if you let Him. All you have to do is trust Him.

God compensates for your weaknesses with His strength. His shield helps you through anything and everything. There is no tribulation, distress, persecution, famine, peril, or sword that can take us away from Christ. Paul boldly states, "For I am convinced that neither death, nor life, nor angels, nor principalities, nor things present, nor things to come, nor powers, nor height, nor depth, nor any other created thing, will be able to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God, which is in Christ Jesus our Lord." (Rom. 8:38&39) God is in control. Psalm 27:14 says, "Wait for the Lord; be strong and let your heart take courage; yes, wait for the Lord." Isaiah 40:31 emphasizes this point, "Yet those who wait for the Lord will gain new strength; they will mount up with wings like eagles, they will run and not get tired, they will walk and not become weary." God is with you all the time. He says, "Do not fear, for I am with you; Do not anxiously look about you, for I am your God. I will strengthen you, surely I will help you, surely I will uphold you with My righteous right hand." (Is. 41:10)

My dear friend, please take His strength each day by your faith. Keep Philippians 4:13 close to your heart, "I can do all things through Him who strengthens me." The Lord's strength is sufficient. Think about the cross, and the pain and suffering that Christ endured for your sake. He overcame! Our trials are small in comparison to the cross and the agony that Christ suffered because He loves us. Remember the resurrection, which is the source of our strength. The resurrection power is more than enough for all our needs. Trust in the Lord and everything will be well with your soul. Amen. 🕊

다음 주일 설교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로다

(시편 115:9)



김석관 목사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을 의지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그들을 구원하셨던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만나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은 오늘날 신자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과 전적으로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복음으로 여러분을 부르셨고 자신의 아들의 피 값으로 여러분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천국까지 성령으로 여러분을 안전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참으로 경외해야 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하시고, 또한 여러분이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족, 친구들을 아시며 여러분이 어디에 사는지, 어디에서 일하는지, 어떻게 사는지를 자세히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한 모든 것을 면밀히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에 대해서 그분이 모르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사실은 모두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비밀까지도 아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감추어져 있는 것들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마 13:35)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땅의 삶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걱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기억하지 못할 때조차도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의인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마 25:34)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비록 그들은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말입니다.(마 25:35~39) 예수님은 모든 신자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십니다.(계 13:8) 예수님은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기억하고 계십니다.(눅 11:50)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 앞에서는 아무 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닌 능력의 한계를 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앞에 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전

10:13) 하나님은 여러분이 얼마만큼 감당할 수 있는지 아십니다. 그분은 하루하루 모든 날 동안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한계점을 아십니다. 참으로 그분은 어디까지가 우리의 한계인지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한계를 넘는 그 어떤 일도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여러분의 불신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여러분이 줄 끝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위태위태한지, 언제 더 이상 못가겠다고 느끼는지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힘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 그곳에 계십니다. 그분은 언제 여러분이 지치고, 불안해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유혹에 빠지고, 낙심되고, 거의 희망을 포기하게 되는지 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 앞에 놓인 사탄의 방해와 핍박에 대해 아십니다. 참으로 복된 소식은 만일 여러분이 허락하거든 하물며 하나님은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의 모든 것을 돌보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오직 그분을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여러분의 연약한 대신에 당신의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분의 방패가 그 어떤 모든 것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위험, 칼 등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로부터 떼어낼 수 없습니다. 바울은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롬 8:38,39)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시편 27:14은 말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찌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찌어다” 이사야 40:31은 강조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갈 줄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사 41:10)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십시오. 빌립보서 4:13 말씀을 여러분 심령에 새기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면 충분합니다.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감내하셨던 그 고통과 피로움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이겨내셨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므로 당하셨던 고통과 십자가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부활을 기억하십시오. 부활은 우리의 능력의 원천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충분히 채우기도 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모든 것이 잘될 것입니다. 아멘. ✞

자기 부인을 통한 참 사랑

수없이 들어왔던 '사랑'이란 단어였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사랑은 매우 특별했다. 그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은 낮아지실과 자기 부인의 본을 보여주셨다. 말이 아닌 몸으로 친히 보여주신 참 사랑인 것이다. 그런데 나의 사랑은 어떠한가? 외식적이며 현실적이고 열매도 없으면서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외치지 않았던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아가페 사랑은 사랑으로서의 전혀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여겨졌다. 따라서 참 사랑의 실천은 내 힘만으로는 할 수 없음을 깨닫는다.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나는 더욱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나를 온전히 다스릴 분은 오직 예수님일 뿐이다. 사랑은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나의 심령에 새긴다. 오직 하나님께만 참 사랑이 있으며 예수님을 통하여 깨닫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다짐하며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을 따른다.

김영희(집사, 21교구)

2007년 제2차 청지기훈련을 통한 은혜

사랑합니다!

임원으로 고동부를 섬긴 지 벌써 한 년이 지났다. 그 동안 말씀도 많이 읽고 선교도 다녀왔고 금요찬양 집회에도 꼬박꼬박 나오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고 나의 믿음도 많이 성장하였다. 그런데 이번 청지기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본받는, 주 안에서 진정한 '사랑'이 나에게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항상 습관처럼 사랑을 말했지만 정작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입으로만 했던 말들이었다. 나는 이 만큼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왜 저 아이들에게는 학생회에 대한 사랑이 없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도 실제로는 주님의 사랑과는 달리 나만의 유익을 구했고, 성을 냈고, 약한 것을 생각하였고, 불의를 기뻐하였다. '예수님은 조건 없는 사랑을, 끊임없는 사랑을 주셨고, 고동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무릎 꿇고 열드려 애통해 하시며 기도해 주셨는데, 나는 정작 무엇을 했나?'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고 또 주는 것, 주는 것만 아니라 또한 용서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데, 나는 이 사랑을 행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면서 가식적인 말들과 마음에만 가득 넣었던 것이 너무나 부끄러웠다. 그 동안 착각하며 살았던 나의 무지를 깨달으니 '제삼 모두 사랑 없어'(찬 373장) 찬송이 어찌나 내 마음을 찌르던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야 할지를 자세히 알려 주는 예수님의 음성 같았다. 이제 나는 진심으로 우릴 위해 무한한 사랑을 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정도로 엄청난 사랑을 주시는 예수님을 사랑할 것이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청지기로 거듭나 모든 것이 협력하여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선을 이루길 기도할 것이다. 그리고 남나래리 서로 연애하고 사랑할 때만 하는 말이라며 부끄러워 산뜻 못했던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앞으로는 찬송가 373장 가사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외칠 것이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가 붙여 있는 우리 증언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김진임(고동부)

십자가의 사랑!

이번 청지기훈련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최근에 일어났던 제 삶의 변화와 은혜에 대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저는 모태 신앙이라는 사실만 있을 뿐 온갖 죄로 가득했던 죄인 중의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죄의 밤새로 가득한 저의 손을 잡아 주신 예수님은 마음의 병으로 힘들어 하던 저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치유의 시작은 제가 아닌 예수님이셨습니다. 영적으로 절망의 아파하던 저를 낫게 한 이 모든 변화는 어느 것 하나 저에게서 시작된 것이 없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갈급함과 소망과 믿음이 모두 제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해서 보상으로 배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이처럼 사랑하사 배풀어 주신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저의 믿음도, 저의 순종도, 저의 소망도, 그 시작은 제가 아니라 이 세상 모두를 사랑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제 힘과 마음으로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죄인인지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여 상처밖에 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정말 제 안의 자아가 죽고 부인되고 어서 제 안의 예수님이 사신다면,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 했던 고백이 제 삶이 된다면, 예수님이 하였던 그 사랑을 저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가장 큰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온전히 제 안에 들어오셨는데, 남을 사랑하지 않고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견딜 수 있을까요? 정말 그 축복할 수 없고 멸할 수 없는 사랑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 많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참 사랑의 본을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입니다.

박정열(대학부)

사랑의 갈보리

첫사랑처럼 설레고 기다려지는 청지기훈련! 매년 세 차례씩 정기적으로 열리는 청지기훈련이지만 이번에는 25개 교구로 개편된 후 첫 훈련이기에 첫사랑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다. 기다리는 중에 성령의 열매 중 가장 귀한 사랑으로 총만헤지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의 온전한 참 사랑, 놀라운 사랑, 엄청난 사랑, 넓고도 큰 사랑, 축복할 수 없는 사랑은 나에게 큰 소망이 되었다. 특히 사랑의 본질이 갈보리 십자가에 있음을 깊이 깨달았다. 마지막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쏟으시며 죽는 그 순간에도 사랑의 기도를 드리신 예수님의 모습은 무척이나 나를 놀렸다. 나에게 주신 사랑을 주는 사랑만을 좋아했기 때문이다. 이제 외식으로 가득한 나의 모습을 회개하며 참 사랑의 향기를 풍기기를 원한다.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기를 기도한다. 십자가 사랑의 향기가 만 끝까지 퍼져 나아가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참 생명의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소망한다.

조숙진(집사, 8교구)

서로 사랑하자

(요일 4:7~11)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 그저 회개하는 마음뿐입니다 *

선도된 말씀은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한 시대를 살고있던 나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갖기 깨닫고 형제를 사랑하도록 격려하는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여 진심으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것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회개하였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식어 어느 틈엔가 타성에 젖어버린 신앙 생활과 내 열심으로 봉사하였던 것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나의 이 된 것은 십자가의 은혜인데 봉사를 하면서도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아가겠다고 다짐하면서도 눈앞의 이익을 위해 허둥지둥 살아온 지난 세월이 부끄럽기만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여 운운하지도 오해 참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지 못하고 입으로만 사랑했던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저 회개하는 마음뿐입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기에 육체의 남은 때를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며 십자가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복음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화재(권사, 18교구)

* 교만과 아집 대신 사랑으로 *

이번 청지기훈련의 말씀 주제가 “서로 사랑하지”여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성경 말씀(고전 13장, 요일 4장)을 읽으면서도 “정말 사랑은 너무 힘들고 어려워!” 하는 할 수 없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어! 그런 사랑은 예수님만 할 수 있어!”하는 마음이 앞섰다. 그러나 말씀을 듣는 중에 내가 알고 있던 사람이 얼마나 편협하고 잘못된 것인지를 확실하게 깨달았다. 예수님은 죄 많고 허물 많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을 주시고 이제는 내 안에 거심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두렵다는 이유로 이제껏 부정적인 사람만을 갖고 살아온 내게, 말씀은 긍정적인 사람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었다.(요일 4:20) 내 주위의 형제, 자매,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약속하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던 말인가? 이 또한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고 살아온 나의 교만과 아집이 아닐까? 주여! 우리에게 붙잡는 사랑, 친밀한 사랑, 축복할 수 없는 사랑을 주시니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인간의 능력과 힘으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으나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에 힘입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염유선(집사, 1교구)

* 나는 그 사랑의 어디쯤 서 있는가 *

허무는 것도다 쌓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다. 하물며 사랑을 쌓는 일이야말로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우선 나 자신에게 반문해 보았다. ‘사랑’이라는 하나의 단어가 주는 의미는 실로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성경에 언급된 네 계명 두 가지, 위로 하나님을 ‘사랑’ 하고, 땅에서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번 청지기훈련에 다가서는 나를 설레게 만들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얼마나 오묘하고 아름다운 말씀인가!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던 나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하시고 택하셔서 그분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한 놀라운 사랑을 받은 내가, 진정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남보다 호홉하는 순간마다 그 사랑을 어찌 잊을 수 있겠나. 또한 그 사랑을 어떻게 나누지 않을 수 있겠나. 우리가 서로 사랑함은 어쩌면 당연하고도 마땅한 일임을 이번 청지기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끝없는 축복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내 안의 중심에 두고, 나는 그 사랑의 어디쯤 서 있는지 돌아보는 참 의미있는 순간이었다. “주님, 진심으로 바라옵기는 나의 손을 사랑을 붙여올리는 도구로 사용하시고, 나의 발은 사랑의 복음을 쌓는 일이 아니면 혼보(寸步)도 움직이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김하나(성도, 3교구)

*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

성령의 모든 열매의 기초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으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십자가를 통하여 확증하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한 가룟 유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전혀 기대할 것 없는 영혼 잃은 베드로, 비판적인 요한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속죄 제물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만큼 그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 땅에 펼쳐진 것과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 제일은 사랑이라 하셨습니다.(고전 13:13) 사랑을 가진 사람들은 열매를 맺어 거룩함에 이르고 마지막에는 영생에 이릅니다. 참된 사랑이 부족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고 천하의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사랑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이영순(집사, 20교구)

* 십자가는 사랑이었습니다! *

저는 기독교 재단에서 설립한 중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매일 1교시는 예배시간이었고 일 주일에 2시간씩 성경공부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뿌리 깊은 유교 집안에서 자란 나였인지, 당시 목사님의 가르침은 길가에 뿌리진 씨처럼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성령에 의한 마리아의 잉태와 예수님의 부활은 도무지 믿기지 않았고, 예수님의 얼굴이라는 그림도 상상에 불과한 것으로 치부하였습니다. 그렇게 한창 시절을 보내고 1993년부터 유언치 않은 만남을 통해 교회에 등록하였습니다. 그후 지금까지 14년간 천령교회에 다니며 수많은 예배에 참석하였고 청지기훈련에도 여러번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나 청지기가 무슨 뜻인지도 모른 채 참석만 하기를 반복하다가 이제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만이 죄인에게 새 생명을 주는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몸을 던져 세상의 죄인들을 아낌없이 사랑해 주셨으며, 우리로 하여금 이 십자가의 사랑을 따라 살도록 본을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은총을 깨닫고 믿게 되었습니다.

허인숙(집사, 14교구)

* 나의 영혼을 적신 사랑의 복음 *

누군가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고귀한 단어를 하나만 꼽아 보려면 아마도 모든 사람이 “사랑”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에 근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사랑조차도 죄가 된다는 사실도 다시금 말씀으로 깨달았습니다. 나는 매우 완악한 죄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절대적인 아가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능력이며 나의 부끄러운 죄악을 풀어 주시고 용서하신 그 사랑의 증거가 나에게 있기에 먼저 영혼을 구할여 여기는 사랑을 주시길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아야 한다고 외치시는 목사님의 말씀이 이슬비에 옷 젖듯 나의 영혼을 적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절그릇 같은 나를 쓸모있는 선한 도구로 빚어 주시니 이 모든 영광을 주께 드릴 뿐입니다. 나에게 끊임없이 부어 주시는 그 크신 주님의 사랑을 이제는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 전할 것입니다.

최미자(집사, 7교구)

* 사랑 그리고 참 자유 *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청지기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을 깨닫게 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살리기 위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그 사랑에는 참 자유가 있다. 겸손히 나 자신을 내려놓고 말씀으로 깨달아야겠다. 나의 영광을 구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다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도구일 뿐이니 자신을 자랑하거나 나타내지 말아야겠다. 사랑한다 하면서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순간순간 남을 정죄하며 나를 돋보이려 하였음을 고백한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기 위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은 자기희생의 것이 될 수 있다. 십자가에서 끝까지 죄인을 용서하신 축복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거짓된 의식을 버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진실된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참된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

권영선(집사, 11교구)

* 사랑의 청지기로 살아가리라 *

말씀의 힘은 놀라웠다.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가능한 일이지만, 반대로 진정된 자기 부인 없이 사랑하기에 인색하고, 이기적일 수밖에 없었던 나의 모습을 보게 하였다. 옛 사람이 나를 앞서고, 불투명한 미래를 근심하며, 세상 풍속과 이치에 따라 일을 처리하고 판단함에 결코 주지않아 살리기 위한 인간적인 내 모습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래 참으셔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이 은혜의 자리에 다시 불러 주시고 “일곱 번째 아니라 일흔 번째 일곱 번째지라도 용서해 주라.”고 하신 그 말씀을 내 안에 거하게 되었다. 비록 고백 제중 때부터 오는 길이 지루하고 답답했는지라도 비좁은 자리에서 서로 부딪히며 온 교인이 같은 소망을 가지고 모인 것이 은혜의 현장에서는 남녀노소 서로가 사랑을 수밖에 없는 소중한 지체들임을 가슴 저리게 확인하는 현장이었다. 사랑의 본질이 다스 내내 박한 다가들지라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힘입어 이제 내가 그 사랑을 실천하게 하실 것을 믿는다. 그리고 먼저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죽기까지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신실한 청지기로 살아가리라.

정훈선(집사, 6교구)

아름다운 사역, 성령님의 역사

9·10·16교구·타교회 연합팀

- 수많은 기도과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무릎 꿇었지만 현장에서 열기가 가득한 눈빛으로, 두 개의 방망이를 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덩비는 경찰들을 보면서 어찌할 줄 몰라 했던 제 자신을 생각하니 주님 앞에 죄스러운 마음이 앞섰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찬양, 말씀, 기도를 통해서 악한 자의 눈과 귀를 멀게 하시고 더욱 영혼 사랑하는 마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김성자 집사)
- 선교지는 과거로 간 것 같은 환경이었다. 벼를 제초장갑에서 선교할 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진공청소기처럼 마음을 흡수하면서 받아들이는 남매가 정말 천사처럼 보였다. 한 가정에 노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은 집수리하다 지붕에서 떨어져 몸져 누워 있고, 그 부인이 해맑은 표정으로 우리가 전한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 마치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 같았다. (허규승 집사)
- 이 사역이 있기 전, 나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것이 나 자신이 기도하고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다. 하지만 선교지에서 우리가 부르짖었던 크고 비밀한 일을 보아시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성령으로 인도하셨다. 사역 3일째 경찰에게 붙잡혔다. 운전기사가 더 이상 운전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기도했다. 그러자 주님께서서는 더 좋은 운전기사와 속소를 마련해 주셨다. (한옥엽 집사)
- 선교지에서의 사역은 한 순간도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없었고 오직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을 채택하게 하는 선교였다. 나 자신의 신앙 점검이기도 했다. 부족한 자를 사용해 주심과 팀원들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열심히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됨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손영만 집사)
- 남편은 기침이 심해 앉아서 발을 새워야 했고, 나는 퇴행성 관절염과 오른쪽 다리의 인대가 늘어나 걷기가 힘들었다. 선교를 가야 하나 망설였다. 하지만 믿음의 부족하고 의심 많은 나에게도 선교를 향한 주님의 뜻이 계심을 알았다. 경찰의 위협으로 운전기사가 그만뒀야 하고, 사역 중에 경찰이 동물을 들고 나를 쫓아온 일 등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님은 나를 꼭 붙들어 주셨다. (사계은 권사)
- 처음엔 말이 잘 통하지 않아 안타까웠다. 하지만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난 후, 회개하며 우리의 목숨도 아끼지 않기로 주님께 기도했다. 45세 된 남자분을 만나 복음을 전할 때 말을 전혀 못 알아 듣는 것 같아 두 손 모아 기도한 뒤 다시 복음을 전하였더니 주님께서서는 서로 통하도록 도와 주셨다. 결국 그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다. (공경자 권사)
- 우리의 계획으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을 다시금 깨닫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통해 나의 연합함을 더욱 깨닫는 선교가 되었다. 담대하게 내려놓고 나아가갈 때 정말 소스라치게 놀라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셨다. 손짓, 발짓 동원하여 전하는 대원들의 모습이 정말 놀라운 사역이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도 아름다웠겠지요.” (유정자 권사)
- 어느 마을을 방문하였을 때 한 사람이 다가와 경찰이라면서 운전기사를 협박하며 신고를 하겠다고 했다. 운전기사는 겁에 질려 더 이상 운행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차량과 속소를 제공하여 준 사람은 선교를 중단하지 않으면 차량을 제공할 수 없다고 하였다. 주님을 의지하며, 차량과 운전기사를 보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걸어서라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로 하고 속소로 돌아오는데 어느 한 운전기사가 한국말로 우리를 불렀다. 인간의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동역자를 허락하셨다. (전성옥 안수집사)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2개 팀)

기 간	팀	팀 장
6월 18일(월) ~ 6월 26일(월)	20·17·21교구 연합	권영주
6월 19일(화) ~ 6월 27일(수)	2·4·5교구 연합	박종철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1개 팀)

기 간	팀	팀 장
7월 3일(화) ~ 7월 11일(수)	11교구	김복수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5개 팀)

기 간	팀	팀 장
6월 25일(월) ~ 7월 3일(화)	10·11교구 연합	김연태
6월 25일(월) ~ 7월 3일(화)	4·5교구 연합	박남주
6월 26일(화) ~ 7월 4일(수)	17교구	강창식
6월 26일(화) ~ 7월 4일(수)	20·18교구 연합	이정택
6월 26일(화) ~ 7월 5일(목)	23교구	박규연

십자가 복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가는 7교구

7교구는 송파동, 방이동, 오금동, 마천동, 풍납동, 신천동, 오륜동, 잠실6동, 성내동을 중심으로 비교적 교회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교구입니다. 231세대, 558명의 성도들이 6개 지역, 20개 구역으로 나누어져 “주님의 교회를 세우가는 그리스도인”(마 16:18)이라는 주제 말씀으로 전 교구 식구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복음의 그릇들로 사용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80명의 일꾼들을 중심으로 하여 모이기에 힘쓰고 모일 때마다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 총연합회에 허락하신 5대 목표를 위해 기쁨으로 순종하는 일에 전심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충만한 7교구가 되는 것은 우리들의 지식, 경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확신합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교구의 모든 식구들이 보혈의 은총으로 충만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에 교구 식구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돌보고 있습니다. 예배와 집회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 재직이어서 금요찬양집회에 안 나오거나 주일 교구모임을 비롯한 각종 모임에 참석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권면하여 복음의 기쁨을 함께 나누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구 식구들이 “총현 성경통신 강좌”를 통해 1년에 일독 이상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읽기표와 매주 교구소식지에 요일별 성경읽기란을 만들어 매일 성경을 읽으며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 복음을 바로 깨달아 십자가 복음만을 증거하는 천국일꾼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특히 남성구역예배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남성구역장들이 매일 첫째 주 교구모임 후 남성구역장 영성훈련(말씀 및 직무훈련)을 받고, 6개 남성구역별로 월 1회 부부가 함께 구역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남자 성도들이 금요찬양집회, 주일 교구모임, 전도회 등 교회 모든 모임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구내 심방은 말씀 중심으로, 여자 성도 중심에서 남자 성도, 단독 세대(중·고등·대학·청년) 중심으로 심방 요일과 시간을 정하여 직장이나 학교로 직접 심방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심방이 어려운 가정은 찬송가, 성경 말씀, 설교 요약을 준비하여 전달하거나 주일 교구모임 후 온 가족을 함께 심방하여 심방을 못 받은 가정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구 내 젊은 이들이 참여하여 젊은 천국일꾼들을 양성하기 위해 요한·미리야 전도회 중심으로 총동원 전도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7교구는 “길, 진리, 생명이신 예수님”(요 14:6)을 구주로 영접하며 십자가의 길만 걷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순간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아 회개하며 자기를 부인하는 데에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 교구가 통행하고 계획 중인 모든 일을 진행하여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이 증거되기를 원할 뿐입니다.



고재승(장로, 제7교구장)

새가족양육부 6월 수료자

내 마음을 밝게 만드신 예수님

♥ 남편이 병상 생애를 받았습니
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천국에서 만나자" 그 유언을
하여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 예수님은 참 고마운 분입니
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예
수님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 말
씀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
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가
장 좋고, 교구 모임에 가는 것
이 좋습니다. 신앙 생활을 하기 전에는 속이 어둡고 생애가 두려웠는데, 이제는 가슴이 벅차
고 속이 짙 찬 느낌이 들고 늘 든든합니다. 이제 더 이상 생애가 겁나지 않습니다. (심순정)



♥ 예수님은 내 마음을 밝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힘들 때 대신 짐을 저 주시고 배고플 때
임을 주어 용기를 얻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교회 생활을 하며 항상 기쁜 마음이 되었고 화가
나도 참을 수 있는 인내심을 주셨습니다. (이원목)

♥ 친구 부모님의 인도로 충령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행복과 고난을 함께 주시지만
언제나 품 안에서 저를 보살피 주시고 사랑에 주시는 분이십니다. 교회에 나오면서 힘들고 어
려운 일이 많더라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생각이 즐거운 마음으로 이기게 되었습니다. 삶의 조금
앞이 조금씩 사라지고 편안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지금의 제 모습에 더욱 행복을 느낍니
다. (이정원)

♥ 예수님은 정말 크나큰 존재입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저의 모든 것을 알아 주시고 지켜
봐 주시는 재능 큰 존재입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 받은 것을 보게 하고 잃은 것만 행동하게
하여 죄가 어떤 것인지 알려 주시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법을 알려 주셨습니다. 신앙 생활을 통
에 제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김수민)

(편진국)

카풀(Car pool), 은혜 가득(Cross full)

심방 중에 제일 연로하신 권사님께서 큰 소리로 "늙은이들, 다리
아파 교회 못가겠어!"라는 말씀이 제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때부터 제가 소유하고 있던 9인승 승합차로 카풀이 시작되었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저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봉사하게 하
셨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덤가나 날씨가 상관없이 항상 교회
로 가는 차 안의 집사님과 권사님들에게는 찬송과 기쁨이 넘쳤습니
다. 비날하우스 일 때문에 항상 피곤해 하시면 집사님은 예배와 집회에
참고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몸이 아파서 쉬고 싶어도 기다리는 차 때
문에 예배에 빠질 수 없다는 집사님도 계셨습니다. 또한 금요찬양집회
를 마치고 집으로 오는 차 안에서 나누는 말씀의 교제는 우리의 마음
을 은혜로 가득 채워 주었습니다. 이처럼 카풀을 하면서 저는 힘든 것
보다 오히려 십자가의 정병으로 훈련되었습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힘
들어도 주님은 저에게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셨고, 특히 금요찬양집
회의 찬송과 말씀은 저에게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김재호(집사, 22교구)

집이 교회와 멀다 보니 혼자 다니는 것보다 교구 식구들과 같이
다닐 때가 더 많다. 이렇게 함께 교회를 가면서 일 주일에 몇 번씩
만나다 보니 '이웃 사랑'이란 말이 우리를 일컫는 말이 되었다. 교회
로 가고 오는 차 안에서 서로 은혜를 나누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된다. 교회에서 한 사람의 열광한 안 보려고 금방 알게 되고, 무슨 일
이 있는지 궁금해지곤 한다. 이렇게 교회로 오가는 카풀은 서로를 지
켜주는 힘이 되었다. 때로 교회에 빠지고 싶은 유혹이 생겼도, 동승자
를 덕분에 이겨낼 수 있었다. 가까이에 신앙의 동지가 있어 서로 협력
하여 믿음의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자기를 부인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오늘도 은혜의
자리를 향해 가는 차 안은 성령으로 충만하다.

박경숙(권사, 24교구)

*교토 제중으로 교회로 오는 길이 쉽지 않다. 그런데 쉬운 방법이 있다.
교회와 도심에 위치해 있어 대중 교통을 이용하기가 용이하다.

특히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카풀을 한다.

더 큰 영적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교회로 오고 가는 길이
교토 제중이 아닌 은혜로 가득한 길이 되도록 서로 협력하자. 서로 사랑하자.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성령의 열매 맺기를

오직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봐야 할 저는 날마다 마음속에서 죄와 싸우고 있
었습니다. 가장 어려서 쓰는 생각으로 육체의 소욕따라 경제적인 안정을 통해 평화
를 얻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연속되는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은 저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기쁨의 복음을 전하자. 성령의 사람이 되자. 믿음으로만 의로워질
수 있다."는 말씀이 저를 흔들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다비를 주어 새 생
명 주옵소서." 찬송가 172장을 부르는 순간 뜨거운 회개의 눈물이 쉴 새 없이 흘
려내렸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로워질 수 있으며 오직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
를 바라보는 자만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열려로 가득한
나의 생각과 욕심은 회개를 이룰 수 없고,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만이
회개를 누릴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마음과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가리지를 속에
성령의 생가를 다 할 수 없도록 하는 방패중의 중의 한 사람이었음을 이세서야 깨
닫고 회개하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을 온전히 맡겨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입은 자로서 살
기 원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생각 없이 뛰어나온 저의 나의 말이 주변 사람
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살피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자비로
운 말로 이제부터는 모든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정함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던
나의 예수님! 이 뜻과 보살핌없는 죄인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불
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정된 순전함이 나의 마음을 가득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성령의 교통으로 인해 영혼이 정화되고 절대적인 행복, 자기 부인만이 내 마
음속에 이뤄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적인 싸움이 치열한 이 때에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육이 아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스의도
복음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자
가 되기를 내 마음을 드려 기도합니다. 아멘.

(권경희(권사, 16교구))

♡ 새 가족 순환 연합 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177	이승기	10	청년2부	이영남(17)	1196	저리거	25	외선부	최규태(2)
1178	나미	25	외선부	최봉순(7)	1197	참바트	25	외선부	최규태(2)
1179	김철화	9	대학부	김지현(13)	1198	일제	25	외선부	최규태(2)
1180	정필모	22	소양부	이영남(22)	1199	다와	25	외선부	정용욱(21)
1181	지순선	10	청년1부	김정미(1)	1200	죽수	25	외선부	정용욱(21)
1182	한기하	22	청년1부	박승준(8)	1201	에르카	25	외선부	정용욱(21)
1183	최영규	1	대학부	이영남(17)	1202	여기	25	외선부	정용욱(21)
1184	고영자	10	청년1부	박성영(16)	1203	몽크	25	외선부	정용욱(21)
1185	윤정애	1	청년1부	이영남(13)	1204	알조	25	외선부	이종진(1)
1186	조혜경	2	청년2부		1205	나타사	25	외선부	이종진(1)
1187	아사노가	19	청년1부	이미주(14)	1206	갈바	25	외선부	이종진(1)
1188	목은선	17	소양부	임남민(7)	1207	버림바	25	외선부	정용욱(21)
1189	김연순	17	청년1부	이승주(17)	1208	백파	25	외선부	정용욱(21)
1190	박경수	7	청년2부	한영옥(7)	1209	갈바	25	외선부	김순남(10)
1191	조종현	1	고등부	백문보(13)	1210	계유진	11	대학부	남지혜(8)
1192	황현정	5	청년1부	이영남(16)	1211	조태준	16	청년2부	김영모(6)
1193	배용호	17	청년1부	최영희(13)	1212	빅을가	25	외선부	이진희(16)
1194	강보민	10	청년2부	황은희(10)	1213	알렉스	25	외선부	사시(25)
1195	김화미	21	청년2부	이현주(11)					

* 순환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모임

1. 정기모회
일시: 4월(수) 2부 예배 후 장소: 당회실
2. 권사회 1,2회 월례회
일시: 4월(수) 1부 예배 후 장소: 갈릴리움

발세

1. 김홍자 집사(김홍식 성도 · 김홍식 성도의 모친, 2교구 태백관2부역) / 27일 별세, 29일 장례

결론

1. 이우송 권(이준희 성도 · 정혜순 타교교사의 아들)과 김민희 양김영희 성도 · 오영희 집사의 딸, 3교구 / 6일(금) 오후 6시 30분, 서울신라호텔 다이너스티룸
2. 최 월근(강종희 씨의 아들과 재혼) 양(재영희) 성도 · 박현자 씨의 딸, 10교구 / 7일(토) 낮 12시, 강남 바리마리에 해당음

◆ 2007년도 하반기 장학생 선정

1. 선발 대상
 - ① 본 교회 등록교인으로 2005년 6월 30일 이전 등록자
 - ② 본 교회의 교회학교에 재적 중인 고 · 대 · 대학원 · 신학대학원 학생
 - ③ 공매매와 교회학교 부서의 집회에 잘 참석하여, 교회 각 부서에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학생
2. 신청 기간 6월 24일(주일)~7월 8일(주일)까지 (3주간)
3. 문의 및 신청 장소 교육과 ☎02-552-8200☎ 472, 473)

◆ 수화 성경공부

일시: 6월 24일(주일)~8월 12일(주일), 8주간 장소: 제2교육관 1층 예배다부실

◆ 권사회 헌신예배

일시: 7월 4일(수) 수요일 2부 예배 시 장소: 본 당

◆ 8교구 공동원 전도집회

일시: 7월 1일(요일) 오후 2시 장소: 아멘홀

총회 교회주변 전도

일시: 여전도회 7월 11일(수), 1부 예배 후
남전도회 7월 14일(토), 오후 2시
장소: 여전도회 각 교구 구역장 영성훈련
남전도회 1지회(1,5,9,13,17,21교구)-301호
2지회(2,6,10,14,18,22교구)-307호
3지회(3,7,11,15,19,23교구)-401호
4지회(4,8,12,16,20,24교구)-407호

이벤트 주 새벽기도회 답당

	2 (월)	3 (화)	4 (수)	5 (목)	6 (금)	7 (토)	8 (주일)
설교자/기도자	유원철/최무길	탁정현/이근호	김한수/채홍표	최성준/정문호	장 준/한용배	여국근/김정연	김준희/안태순
설교 본문	잠 20:13-22	잠 20:23-30	잠 21:1-9	잠 21:10-21	잠 21:22-31	잠 22:1-10	잠 22:11-16

예배담당 안내 (7/4-7/8)

날짜	예배	설교	사회	기도	찬양
7/4	수요 I	가서 베드로에게 이르라 (막 16:7) 김성관 목사	유승일	이남숙	나 캄캄한 밤 죄의 길에 (호산나 찬양대)
7/4	수요 II	하나님 (렘 4:1-6) 김준희 목사	김익환	김환기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실로암 찬양대)
7/6	금요찬양	김성관 목사	강명구		예루살렘 찬양대 / 별로 이회영 / 별별 찬양중단
7/8	주일 I	여호와를 의지하라 (시 115:9) 안태순 목사	최성준	강철형	[예배 전 집회]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 불로노은영(아름다운 오케스트라) 이제야 우리 중거야 이 비로와 / 남성중창합창단(아름다운 찬양대) 솔리스트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 이/변 오케스트라 예수는 나의 힘 이요 / 소프라노 김연희(별별 찬양대 찬양대) 솔리스트
7/8	주일 II	여호와를 의지하라 (시 115:9) 김익환 목사	유승일	황미만	
7/8	주일 III	여호와를 의지하라 (시 115:9) 김성관 목사	장준	최무길	
7/8	주일 IV	여호와를 의지하라 (시 115:9) 류병희 목사	최성관	박철구	
7/8	주일 V	여호와를 의지하라 (시 115:9) 양재용 목사	유성태	이재석	
7/8	주일찬양	누가 진리로 걱정하는가 (눅 16:19-31) 김성관 목사	김철규	이상철	별별 애정중단 / 실로암 찬양대 / 7교구

예배 및 집회 안내

구분	시간	장소
주일예배	I 오전 7:00	본 당
	II 오전 9:00	본 당
	III 오전 11:00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 당
	IV 오후 1:00(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 당
	V 오후 3:00 (젊은이들이 드리는 예배)	본 당
주일찬양예배	오후 5:00	본 당
수요 예배	I 오전 11:00 II 저녁 7:30	본 당
금요일찬양회	저녁 7:30	본 당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00	본 당

기도원 집회 안내 (☎ 031-766-5425)

집회	시간	차량
화요일집회	오전 11:00	오전 10:00 본당 앞 출발
금요일집회	저녁 11:00	금요일 찬양회 후 본당 앞 출발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III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수화,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IV 예배는 스페인어, 중국어, 독일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로 통역합니다.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Eleven O'clock Worship Service, and Sri Lankan,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also available at the One O'clock Worship Service.

구분	시간	장소
영아부	I 오전 9:00	제1교육관 110호
	II 오전 11:00	
유아부	오전 10:30	제1교육관 201호
유치부	오전 10:50	제1교육관 207호
유년부	오전 10:30	제1교육관 307호
초등부	오전 10:30	제1교육관 407호
소년부	오전 10:30	제1교육관 507호
중등부	오전 9:00	제1교육관 301호
중등부 2	오전 9:00	제1교육관 401호
중등부 3	오전 9:00	제1교육관 501호
고등부	오전 11:00	제2교육관 4층
대학부	(토) 오후 2:00	제2교육관 4층
청년부	(토) 오후 5:30	제2교육관 4층

구분	시간	장소
청년 2부	오후 12:15	제2교육관 2층
청년 1부	오후 12:30	제1교육관 507호
청년 2부	오후 12:30	제1교육관 407호
청년 3부	오후 12:30	제1교육관 307호
소망부	오후 12:15	갈릴리움
사랑부	오전 11:00	복자전 지하1층
예배다부	오전 9:00(약 6:00) (금) 저녁 7:00(약 9:30)	제2교육관 1층
타악부	오후 12:15	배다나 홀
새가족양육부	오후 12:30	제1교육관 107호
정신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국내대국인전교부	오전 11:00	아 멘 홀

심 · 기 · 는 · 분 · 들

■ 위임목사 김성관

사무장로				■ 부목사
김준호	노광현	이병환	이 훈	남순우
제1교구장	제2교구장	제3교구장	제4교구장	제5교구장
김종구	최두민	이광호	차석득	김경남
제6교구장	제7교구장	제8교구장	제9교구장	제10교구장
이종식	이무현	전홍용	전승철	이광우
제11교구장	제12교구장	제13교구장	제14교구장	제15교구장
김관용	한승균	김우규	김은철	한철원
제16교구장	제17교구장	제18교구장	제19교구장	제20교구장
이형수	안윤환	최창만	김기현	최종민
제21교구장	제22교구장	제23교구장	제24교구장	제25교구장
이계인	박덕양	이대식	박규근	권운호
제26교구장	제27교구장	제28교구장	제29교구장	제30교구장
조종환	배준식	김달일	김성호	최희준
제31교구장	제32교구장	제33교구장	제34교구장	제35교구장
이영환	박철구	정경길	신상수	고재훈
제36교구장	제37교구장	제38교구장	제39교구장	제40교구장
강형철	김은경	이덕우	장철중	김승곤
제41교구장	제42교구장	제43교구장	제44교구장	제45교구장
한도환	윤서민	정영환	안석현	김진근
제46교구장	제47교구장	제48교구장	제49교구장	제50교구장
강국작	김종선	임익성	김철원	전희태
제51교구장	제52교구장	제53교구장	제54교구장	제55교구장
김진국	전계식	장승우	전은호	서영철
제56교구장	제57교구장	제58교구장	제59교구장	제60교구장
구재환	조두식	최희용	신진국	유상재
제61교구장	제62교구장	제63교구장	제64교구장	제65교구장
박상태	김규석	김희철	정창수	엄정복
제66교구장	제67교구장	제68교구장	제69교구장	제70교구장
이석식	유호돈	양기우	김민식	■ 전임목사
제71교구장	제72교구장	제73교구장	제74교구장	제75교구장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 전임목사		